

■ 가연성 처리가 된 나무를 태울 때, 다이옥신 다량 배출

- 프랑스의 경우, 주요 배출원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량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
 - 프랑스 환경부에 따르면 '99년도의 경우, 폐기물 소각로와 금속산업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의 양은 각각 200 g, 140 g으로서 지난 '95년에 비해 64%가 감축되었음
- 측정기술의 발전과 대상 확대에 따라 새로운 발생원들이 발견됨
 - 프랑스 환경부에 의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다이옥신 발생량의 30%에 이르는 연간 150 g 정도가 다른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고 함
 - 가정에서 연료 등으로 태우는 나무 중 5%가 가연성 처리된 것이라고 가정할 때, 연간 100 g까지의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함
 - 산업계 보일러에서 연소시키는 목재 중 50%가 전처리된 것이라고 보면, 여기에서도 연간 14 g의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음
 - PVC 피복전선을 불법 소각함에 따라 연간 40 g 정도가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
 - 피복전선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로 소각되면 톤 당 약 1 g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됨
- 프랑스는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다이옥신 발생량을 저감할 계획임
 - 폐기물 소각로에서의 발생량을 2007년까지 연간 10 g으로 감축할 예정임
 - 전선피복을 불법 소각하거나 나무에 가연성 製材를 첨가하는 등의 행위가 법으로 규제될 전망이다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